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22일 수요일 음 3월 30일 (7월)

건강&생활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는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7~10°C, 낮 최고 기온은 13~16°C의 분포를 보이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 for the next few days.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월드뉴스

CNN “美 ‘김정은 중태’ 정보 분석 중”

태양절 행사 불참 추측 제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사안을 직접 알고 있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 지도자들이 과거 중요한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중요한 상황 전개로 여겨졌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판명된 적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CNN방송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한국을 상대로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한 취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지도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또 다른 무서운 전염병



신 윤 경
복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20세기 후반 새 시대의 문을 열었다면,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우리가 메르스사태와 세월호사건을 겪으며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 절감한 뒤에 일어났다.

것처럼 등장해 우리나라를 세계무대 중앙에 올려놓았다.

한편의 잘 만들어진 영화처럼 초반에는 연이은 악재 속에 고전했으나 특유의 성실함, 신속함, 공동체성으로 난제를 해결해나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됐다.

여기서 퀴즈 하나, 코로나19 만큼이나 무서운 전염병이 있다. 이 병역 시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전파되고 사람과 사회를 병들게 하며 생명을 앗아간다.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우리가 메르스사태와 세월호사건을 겪으며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 절감한 뒤에 일어났다.

트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비율은 코로나19의 전염률보다 결코 낮지 않다.

언젠가부터 세상엔 ‘손대면 특하고 타질 것만 같은 그대들’이 넘쳐난다. 불과 십여년 전만해도 ‘아프나, 나도 아프다’는 달달한 사랑의 대사가 있었으나 이제는 ‘듣기 싫으니 그 입 다물라’가 됐다.

코로나19에 대응하듯 우리는 화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까? 화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의 정서다. 화는 흔히 분노로 비유되는데, 분노 집과 자연을 초토화시키고 죽음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온기를 주고 음식과 물을 대위 생명을 복돋기도 한다.

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종종 화의 파괴적 속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참기만 하다가 폭발하거나 잔뜩 화를 키워 잔혹해진다.

사랑과 신뢰는 말이나 이모티콘으로 주고받을 수 없다. 나와 상대를 위해 몸 움직여 살아가는 것 없이 그저 사랑과 신뢰가 가능할까?

열린마당

꽃자왈 생태서비스



김 기 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10여 년 전 아마존의 눈물이란 다큐멘터리를 상영한 적이 있다. 아마존이 사라지면 지구에 존재하는 절반의 생물을 잃게 된다고 하며 아마존의 자원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환경과 파괴는 불변한 진실을 알리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기억이 난다.

지구의 허파가 아마존이고 한반도의 허파가 백두대간 생태축이라면 제주도의 허파는 꽃자왈이다.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을 생애계서비스라 하며 4가지로 구분된다. 식량, 수자원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대기정화,

자유와 대가



황 정 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코로나19 변이와 집단감염으로 인해 방역 대책과 상황 예측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굴하지 않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해외유입과 2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로 우려는 날로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렇듯 자가격리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14일간 자가격리로 그 가족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개인위생과 방역관리에 노력한 시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해 극복하려 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행동에 협력이 이뤄진 상황에서 이탈자 발생은 분쟁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1830년 콜레라가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발생했을 때 러시아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지역을 봉쇄·격리했고 억압적 격리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 콜레라 병원을 습격해 의사들이 살해됐다.

이런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하루 빨리 얻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우리 사회가 현재 필요로 하는 규범을 준수해야만 한다.

Jeju Provincial News section containing various notices and announcements.

Advertisement for Jeju Won Job Training College, featuring job training program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Bing's Shindeulim Clinic, offering medical services and contact details.